

## 기업 도메인 관리 비상

기업들의 도메인(Domain·인터넷 주소)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작 몇만원에 불과한 재등록비를 내지 않아 눈뜨고 도메인 소유권을 날리거나 해킹으로 도둑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집 주소와 같은 도메인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힘들어 기업 신뢰도는 물론, e비즈니스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긴다. [어이없는 관리 부실] 국내 최대의 인터넷포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4월 자사 '한메일' 서비스의 도메인(www.hanmailnet)의 재등록 수수료를 내지 않아 소유권을 날릴 뻔했다. 도메인을 계속 갖고 있려면 1년에 한번씩 등록기관에 재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측은 한 네티즌의 제보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수수료를 납입,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A사는 지난 5월 도메인을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이면서 재등록비를 내지 않는 바람에 도메인을 삭제당했다. 스웨덴 정보통신업체 에릭슨도 재등록 수수료를 내지 않아 지난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관련 도메인의 소유권을 국내업체에게 넘겨준 상태다. [해킹에 속수무책] 도메인 해킹에는 기업 도메인 관리자의 e메일을 해킹해 등록정보를 빼내거나 미국 네트워크솔루션즈, 리얼네임즈 등 도메인 등록기관의 서버에 침투,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정보제공 포털 114닷컴(www.114.com)을 운영해온 황도씨는 지난 7월 도메인 등록기관 접속용 개인ID를 해킹당하는 바람에 보유 도메인 159개를 잃었다. 해커가 도메인들을 해외 등록기관의 서버에서 모두 지워버린 탓이었다. 황씨는 "2개월째 사업 중단상태에 빠져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사업가 O씨는 운영중인

'www.egift.com' 사이트의 도메인을 해킹으로 삭제당했다. 다행히 인터넷경매에서 되찾을 수 있었지만 수백배의 비용을 물어야 했다. 도메인이 삭제되면 소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고, 이것이 재유통되기도 한다.

[치명적인 피해] 도메인을 잃어버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 인터넷을 통한 e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회사 e메일이나 웹기반으로 이뤄지는 각종 네트워크·솔루션 이용도 불가능해져 업무 마비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등록기관이 보내는 e메일과 결제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기간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해킹에 대비해 보안이 잘되는 e메일 서버를 사용하고, 등록정보용 ID에 대한 패스워드를 수시로 바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메인 컨설팅업체 (주)후이즈(www.whois.co.kr)의 이청중(李靑鍾)대표는 "신규 도메인 등록이 늘면서 관리소홀이나 해킹에 의한 위험도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외국 도메인 등록기관을 쉽게 해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국내 등록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전매일

## LG "특허권을 사수하라"

LG(www.lg.co.kr)가 애써 개발한 신기술이 외국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관련 조적을 대폭 보강하는 등 특허관리와 특허분쟁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LG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표준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LG전자와 LG필립스LCD 등 첨단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

고 있는 디지털. 바이오 부문 계열사를 중심으로 특허권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경우 최근 디지털TV, 전자상거래PC, DVD 등 디지털기술의 세계표준 선점을 위해 특허획득은 물론 특허권 보호와 분쟁처리 등에 각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특허분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올해초 특허의 출원과 취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라이센싱 인'조직과 함께 특허침해 대응과 로열티 협상을 담당하는 '라이센싱 아웃'조직을 신설했다. 전담인력도 17여명에서 30여명으로 크게 늘리고 특허업무를 세분화해관리체계를 정비했다. LG전자는 컴퓨터 기술표준인 'PCI버스(정보전달통로규격)'을 무단 사용한 미국과 대만 PC업체 7곳을 대상으로 미국연방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전 세계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로열티 협상을 벌이고 있는중이다. LG필립스 LCD도 특허담당조직을 원천기술 특허분쟁을 전담하는 '특허1팀'과 특허출원, 취득을 담당하는 '특허2팀'을 별도로 설치해 산업재산권획득과 보호업무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유효화면을 더 넓게 만드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과 LCD의 밝기와 시야각을 넓히는 '고개구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LG필립스LCD는 앞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와 분쟁이 따를 것에 대비해 특허조직을 정비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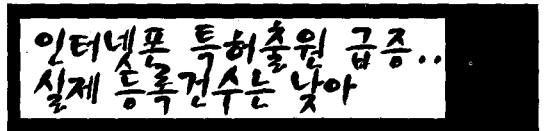
또 R&D인력의 특허 출원과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로 얻는 로열티 수익 가운데 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제품 적용단계에서도 1000만원까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다.

LG이노텍도 연구소에서 전담직원 1명이 담당하던 특허관련업무를 CTO(최고기술담당임원)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하고 인원도 3명으로 보강했다. LG이노텍은 CTO 책임아래 산업재산권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분야의 특

허지도를 만들어 효과적인 특허분쟁 예방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전선업계에서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LG전선은 산업재산권 독점적 보유와 보호를 위해 양적인 특허출원을 자제하는 대신 우수 특허만을 선별적으로 출원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수의 창출과 특허침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막대한 R&D투자의 산물인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힘들여 확보한 선도기술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로열티 수입 등 산업재산권이 유발하는 안정적인 수익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을 쏟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인터넷 폰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www.kipo.go.kr)은 인터넷망을 이용해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폰관련 특허출원이 지난해에만 1339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원특허도 인터넷폰과 관련된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벗어나 통화품질 저하를 막기위해 게이트웨이와 코덱(CODEC), 신호처리방법 등 전송기술 출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보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술출원도 두드러지고 광고·결제·예약·쇼핑·컨설팅 등 영업발명(BM) 형태의 출원도 많다. 출원인도 대기업주도에서 중소벤처업 중심으로 바뀌어 96년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339건의 전체 출원건수 중 중소벤처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폰 시장 경쟁이 심

화되면서 선행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채 출원하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다한 출원경쟁으로 특허성이 없는 인터넷폰 관련 특허출원이 많아 실제 등록되는 건수는 출원건수 대비 10%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ms, 노키아, 소니 3대 상표선정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소니 등 3개 회사가 홍콩 지역 3개 잡지의 독자들에게 의해 세계 3대 상표로 선정됐다고 홍콩의 3개 잡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아시아위크, 포천 아시아, 타임 아시아 등 3개 잡지사는 11개 분야 191가지 상품에 대해 약 8천 500명을 대상으로 상표 이미지와 상품의 품질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응답자는 상품에 대한 친밀도, 품질, 편의성, 기술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회사를 평가했다. 한편 세계 10대 상표로 선정된 회사는 이외에도 싱가포르항공, 시티은행, 도요타(豊田), 인텔, 메르세데스 벤츠, IBM, 비자 등이다.

부문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장비와 정보기술에서, 노키아는 통신에서, 소니는 전자와 전자장비에서 각각 수위를 차지했다. 또 도요타는 자동차에서 최고의 상표로 올라섰다.

출처 한국경제

### 특허청, 우리말 상표 출원 늘어

최근 외래어 상표 대신 고운 우리말 상표가 경쟁적으로 출원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7만2천705건의 상표가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말 상표는 식음료품류의 경우 ‘참새도 탐낸 쌀’ ‘허수아비가 지킨 쌀’ ‘햇살내음’ ‘오늘 찌은 쌀’ ‘양파마을’ ‘해든 나라’ ‘방울떡’ ‘지화자’ ‘어화둥둥’ ‘발근’ ‘새찬’ ‘상크미’ ‘술깨비’ ‘참맛참빛’ ‘참고을’ ‘버들송이’ ‘산들무’ 보드란 ‘달군달아’ ‘뽕 대신 닭 만두’ 물돌이 찜닭 ‘따로따로’ 등이 출원됐다.

식당과 병원 등 이름으로는 ‘소야 돼지꿈 껌’을 비롯해 ‘소를 찾아가는집’ ‘오미가미’ ‘찌개나라 탕마을’ ‘속푸리’ ‘바다소그로’ ‘밀려오네’ ‘민물한마당’ ‘정터구이골’ ‘얕으나 서나’ ‘찌개나라’ ‘늘 가는 집’ ‘예쁜 다리 정형외과’ ‘이가 편한치과’ 등이 있다. 또 의류 및 신발류에 ‘티는 아이들’ ‘땀지’ ‘지게’ ‘아리따’ ‘뽕뽕뽕’ ‘큰엄마’ ‘울챙이’ ‘고운 님 여의웁고’ 등이, 교육업 및 종이제품류에 ‘재미랑 숫자랑’ ‘큰마음 작은아이’ ‘재미존’ ‘생각꿈들’ ‘떡지우개’ ‘빨랑빨랑’ ‘뽕송이’ 등이 각각출원됐다.

이밖에 ‘풀잎사랑’ ‘물방개’ ‘아이신나’ ‘씩씩이’ ‘미리내돌’ ‘새악시’ ‘새암물’ ‘푸른비’ ‘과일친구’ ‘들사랑’ ‘온들녘’ ‘우렁찬’ ‘푸름네’ ‘어르신 사랑’ ‘알참이’ ‘즈른’ ‘가시리’ ‘복새통’ ‘마당쇠’ ‘맛돌이’ 등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가 출원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유명상표를 영어 스펠링 한자만 바꾸거나 비슷한 칭호로 바꿔 상품이나 간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참신성을 원하는 소비자 성향 때문에 우리말 상표가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말 상표는 어감이 좋고 친숙해 소비자들에게 쉽게 기억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